

221025 [발언문] 기무사재판 기자회견_이태호 (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오늘 오래 끌었던 재판의 1심 재판에서 기무사의 지휘부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반드시 있었어야 될 것이지만 너무 늦은 판결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전에 이 지휘부의 지시를 받고 활동했던 간부들이 징역 1년 또는 1년 6월의 징역을 받거나 일부는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사필귀정이라는 느낌을 가지면서도 저희는 아쉽습니다. 그리고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군이 국민을 적대시 했습니다. 정부가 피해자들을 반정부 세력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는 것을 넘어서 이 군이 선량한 국민과 피해자들에 대한 작전을 제안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1년 또는 1년 6개월, 2년에 해당하는 범죄인가 저희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금으로 낸 그리고 나라를 지키려고 만들어낸 군이 자신을 겨냥해야 할 무기를 조직을 국민을 향해서 겨누었다면 이렇게 간단히 끝날 일은 아닙니다.

또 하나, 그렇다고 기무사가 했던 일들이 다 밝혀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기무사령관을 지냈던 사람 3년간 해외 도피했습니다.

이 기무사령관들의 지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또 그 기무사령관에게 과연 누가 지시를 하고 그 첩보를 가지고 어떤 작전을 어떤 공작을 우리 피해자들에게 했는지 우리는 밝혀야 합니다.

따라서 기무사령관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청와대 실수비 회의를 했던 그 비서실장들, 그리고 그 보고를 받았던 사람 대통령, 이 모든 것들이 아직 어떤 것 하나 투명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기무사는 이른바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세월호 관련 일부 사실이 밝혀졌지만 국정원이 무엇을 했는지 다른 정보기구가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세월호참사에서 국민을 구하지 못한 책임 구하지 않은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가리고 오히려 진실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핍박했던 이 범죄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모두 밝혀내고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정직하지 않을 때 공무원이 우리가 지금 권력을 남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분명히 해 두지 않으면 이런 일은 재발될 수밖에 없고 국가 공권력으로 또다시 국민을 억압할 것이고 그것을 감추려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기무사 관련자들 그리고 국정원 관련자들이 최종심에서까지 어떻게 처벌받는지 지켜보고 이들의 엄중한 처벌을 위해서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기자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십시오.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다짐했고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기구들 그 기무사를 정말 바뀌었습니다. 저희도 감시하겠지만 기자 여러분들이 계속 지켜보시고 감시하고 보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